서울신문

부모님께 관광보다 임플란트로 효도하세요

기사입력 2009-04-21 14:06

[서울신문]봄이 되면 가족 나들이가 빈번해지는 만큼 큰 맘 먹고 부모님께 효도관광을 권해드리기도 한다.

물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마음과 배려가 한없이 고맙겠지만 간혹 몸이 불편해 효도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면서 풍치나 충치, 치주염 등이 찾아오고 급기야 치아의 상실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찾아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치아의 통증이나 상실로 인해 맛있는 음식은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처럼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많은 이들이 임플란트로 자연치아를 대체하고 있다.

임플란트란, 브릿지와는 달리 다른 치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치아가 상실된 자리에 인공뼈를 심고, 치아 보철물을 올려 인공치아를 만들어 주는 시술로 최근에는 3차원의 CT 도입과 물방울 레이저 시술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층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브릿지나 틀니보다는 장기적이고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한 임플란트로 부모님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 서울신문 구독신청] [☞ 제8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대회 참가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81&aid=0002010136